

아름다운 사람의 목소리 하모니 이뤄 예술로 승화

청산에 살리라~

벨라보스 여성합창단

벨라보스 여성합창단이 지휘자 윤호중씨의 지휘에 맞춰 합창을 하고 있다. 이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라는 포르투갈어로 아름다운 목소리와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 2016년 3월에 창단한 여성합창단이다.



"Jubilate Deo"

온고을 어머니합창단

온고을어머니합창단이 박종철씨의 지휘에 맞춰 합창과 함께 열린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온고을어머니합창단은 2007년에 창단됐으며, 전주시 지역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합창단이다.



엄마야 누나야

완주 여성합창단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완주 여성합창단원인 송성근씨의 지휘에 맞춰 합창으로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완주 여성합창단은 1991년 주부합창단으로 창단한 뒤, 2004년에 명칭을 변경해 활동하고 있다.



'아리아리랑~'

전주 아버지합창단

전주시역 중장년 남성들로 구성된 전주 아버지합창단이 정수균씨의 지휘에 맞춰 합창을 하고 있다. 이들은 2011년 10월 창단해 짧은 기간이지만 수차례의 각종 연주회 및 자선음익회를 연 바 있다.



'인연'

빛소리 합창단

남녀 혼성합창단인 빛소리 합창단이 지휘자 김아영씨와 호흡을 맞춰 합창을 하고 있다. 이들은 2007년 여성합창단으로 시작했으나, 2016년 남성단원을 추가 모집해 혼성 합창단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막걸리 한잔~'

김제시립합창단

무대의 마지막 파날레를 장식한 김제시립합창단이 지휘자 백동현씨와 호흡을 맞춰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김제시립합창단은 김제를 대표하는 전문 예술단체로 매년 정기 연주회를 통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제6회 전라북도 아리울 어버이합창제의 사회를 맡은 배우 정의갑씨(사진 왼쪽)와 대회사를 하고 있는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

축하 공연



축하무대에 나선 가수 이진관씨가 자신의 히트곡들 중 하나인 '영자만보여요'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인 바리톤 석상근 교수의 축하공연. 그는 '오 솔레미오' 등을 열창해 이날 공연장 내 좋은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축하공연으로 무대에 오른 통기타 가수 박영일씨가 '축제'를 부르고 있다.

본 공연에 앞서...



본 공연에 앞서 리허설을 하고 있는 김제시립합창단원.

무대 밖에서...



공연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빛소리 합창단원들.